

포천사회 知識人 ④6

대진대학교 조 순 호 교수

“시각적 특성화 반영한 도시환경 필요”

컨셉에 따라 다양한 작품활동 전개해 나갈 계획

“조순호는 수묵화, 지필묵이란 매체를 통해 그 무슨 고고한 문학적 교양미와 초월적 보편미를 강조하거나 또는 아이덴티티를 덮어 써주기 보다는 상당히 실존적 차원에서 다루는 편이다. 그림그리기의 주체로서 사 고하는 흔적이 소재와 매체가 혼효되어 물 을 내미는 그런 차원에 근접한, 그러니까 삶 의 경험과 조형적 표현을 중첩시키고 연결 지우려는 노력 말이다. 조순호는 그렇게 수 묵화를 통해 지극히 개별적인 자신의 삶을 보여 주고자 한다. 아니, 삶을 자연스레 반영 할 수 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게 주제나 소재, 그 자체의 무거 운 의미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사실 그림의 새로움이란, 주제와 내용, 형식의 새로움이란 결국 작가의 관찰과 행함 속에서 이루어 진다. 자신의 삶이 들어간 그림, 이른바 육 화된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새로운 그림이 다. 그러나 그런 자질로 매순간 자신의 몸 과 감각이 끊임없이 새롭게 접촉되지 않는다면 그 새로움은 없다.”

이상은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교수가 대진대학교 미술학부 조순호(52·사진)교수의 수묵화 작업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의 일부다.

2001년3월 대진대학교 부임한 조 교수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남산초등학교, 천성 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평범함 속에서 뭔가 내 목소리를 찾고 싶다”는 조 교수는 전공에 대해 과거에는 ‘무뎠제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뚜렷하게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전공분야가 확연 하게 구분됐지만 최근에서는 전공이 서로 넘나들고 있다.

서양화나 동양화가 서로 전공을 변경하고 있으며 과거에 동양화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림, 삶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러나 인식이 달라졌다. 동양화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 수묵화이다. 도구나 재료는 전통적인 것으로 쓰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누구나 아는 것에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전공을 확대하고 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묵화, 재료기법, 문인화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대진대학교에 부임하기 전 서울에서 강의할 때와 이곳 대진대학교 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더욱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자는 그림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했다. 繪事後素(회사후소). 그림 그리는 것은 흰 바탕 위에 습작하는 것이다. 그림에 있어 테크닉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안에 숨겨진 정체성이다. 동양화는 인간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고 열리는 마음이 있어 야만 그림이 된다. 테크닉은 나중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대진대학교 학생들은 마음이 열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착하고 인간적인 깊이가 있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전공관련해서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 교수는 도시환경의 문제를 지적한다. 길거리 가로수와 보도에 그려진 그림은 성춘향과 이도령의 모습처럼 보인다.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이보다는 더 낫게 만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시각적 특성화를 발견할 수 없는 도시 라는 생각이 든다.

포천시는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세미나, 행사, 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작품에 몰두하기 때문에 교육에 나설 수가 없다. 의식개혁, 예술을 인식할 수 있으면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일이 가능 해진다.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음식도 먹어 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많이 봐야 한다. 좋은 전시회를 찾아 관람해야 한다. 눈이 높아져서 즐길 수 있다. 좋은 전시회가 많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화 1953-2007 展’은 특기할만하다. 우리나라에 한국

화가 태동하면서부터 서양미술과의 접촉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80명의 한국 화 작가를 초청해 기획전시회를 가진 것이다. 조 교수도 여기에 물론 초청돼 작품을 전시했다.

“순간에 진실하자”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조 교수는 과거의 잘못된 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양하고 오직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림 그리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의식이 투명하고 맑으면 된다고 강조한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투명한 의식을 키워주는 노력이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작가는 의식이 뚜렷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의식이 살아있으면 농뿔자도 살아 있다. 늘 정신속에 그림그리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작가는 머리가 무거운 편이다. 이 무거운 머리를 편안하게 하려면 단순한 운동을 해야 한다. 조 교수는 20년동안 테니스를 즐겨왔다.

조 교수는 한국미술협회 이사, 월전미술관 연구원, 동방예술연구회 회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국 장애인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앞으로 작품활동 계획에 대해 조 교수는 일정한 테마로 하는 작품활동에 상당히 비 판적이었다. 틀안에 갇힌 예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각이 변화가 왔다. ‘컨셉’을 정해 작품활동을 하고 싶다.

포천신문이 일반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조 교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단체전 및 개인 전시회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현대한국화전(인민문화궁, 북경) ▶서울미술대전(시립미술관) ▶한국미술 2001-회화의 복권(국립현대미술관) ▶중 앙화 파라디소(포스코 미술관) ▶한국화 위상과 전망(대전 시립미술관) ▶한·일 미술 회화 표현(일본)·2006 ARTEXPO(뉴욕) ▶금호미술관 15주년 기념전(금호미술관, 서울) ▶오늘의 작가전(세종문화회관) ▶중·한 현대수묵전(관산월미술관, 중국)(개인전) ▶1991 토·아트스페이스(서울) ▶1992 신 세기미술관, 아라리오 화랑 ▶1994 금호갤러 리(서울) ▶1996 Müller-Brunert 갤러리(Koh, 독일) ▶1997 갤러리 사비나(서울) ▶1999 Galerie HANA(Kronberg, 독일) ▶2000 갤러리 사비나(서울) ▶2002 공평아트센터(서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좋은 전시회를 자주 접하면 눈이 높아진다”

집중인터뷰 포천시의회 이병욱 의원

오피니언 리더 자기역할 충실해야

포천출신 원로 정책자문 포천발전 방향 모색

이병욱 시의원은 포천시 현안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과 국회의원 갈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천시 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원로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공여지로 인한 피해지역이 영북, 영중, 창수 등 3개 면이지만 피해 보상은 커녕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병욱 시의원과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갈등원인

인과 해소방안은 지역사회 갈등은 시민간의 갈등은 거의 없다. 다만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야기되는 선출직들간의 갈등이 심하다. 포천시장이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나쁜 문제를 놓고 시장과 국회의원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게다가 시의원 중에서 시장과 친분 있는 사람과 국회의원과 친분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차기 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서로간에 갈등을 빚고있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주민을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선출직들은 스스로가 뒷사람을 모시기를 싫어한다. 지도자라고 하면 정치관념을 초월해 지역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포천지역사회의 특성은 포천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수도권으로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봤다. 한국전쟁 이후 국방상 이유로 혹은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나 경기도 차원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근 시군들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포천지역은 개발후후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같은 원인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따로따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포천신문시라든가 혹은 지역공향, 37번 국도 등 포천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있다. 여기에 포천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은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봐야 한다.

▶포천시장의 배타성에 대해 포천지역의 배타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맥을 동원한 모임 혹은 선거때 움직임은 있다. 과거 기초의원들의 경우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많았다. 인맥을 통한 선거나 움직임은 사고의 폭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 배타성은 일부 공직자사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없다고 본다. 배타성이 있다면 영북 출신이 어떻게 포천시장에 당선될 수 있고 5년째 단체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포천시가 한국능률협회 품질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장 등 80여명을 초청하는 자리에 시의회 의장을 초청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30일부터 포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시장이 몽골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일부 의원과 집행부가 말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포천출신이면서 중앙정부 고위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많다.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포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 포천발전 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책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포천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적이 필요없으며 시장과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는 정치이지만 임기동안은 포천을 위해 뭔가 해야한다. 포천신문이나 지역공향 등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장 지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경을 안쓴다. 군부대 사격장 문제나 한탄강댐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천시의 경우 하이닉스 문제로 시장과 국회의원, 심지어는 도지사까지 합심해 해결하려고 하는 데도 안되고 있다. 포천지역에는 현안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시장과 국회의원이 합심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어 되는 일이 없다. 포천시를 되돌아 보면 한심스럽기만 하다.

▶포천지역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포천지역의 첫 번째 현안문제는 도로문제다. 현재 계획중인 민자고속도로 등이 빨리 추진되면 포천의 교통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포천 북부 지역인 영북, 영중, 신북, 창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7번 국도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봉화골산업단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37번 국도가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

또 미군공여지 피해지역은 영북과 영중, 창수면 등 3개면이다. 이들 지역은 미군 훈련터량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영평사격장 부근 징발지를 미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단유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미군 공여지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은 관련법에 의한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주어진 4년 임기동안 열심히 하면 된다. 미리 경쟁자를 선정하고 정치적으로 적대심을 가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도 될까말까하는 일이 많은데 갈등만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 시의회도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시의원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다. 자신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면 선거에서 2선 혹은 3선은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적으로 색깔은 달릴 수 있어도 지역현안 문제에 관해 서로가 자기역할을 하길 바란다.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의정부시무용단 제11회 정기공연

相生 2007

1부-당기당창 수월래 수월래
2부-흰 꽃잎이 마음에 묻힐 때...

연주: 이미숙(비올라) 주현민(첼로)
연주: 홍우림(비올라) 안국영(첼로)

2007. 6. 22(금) 오후 7시 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주최: 의정부시무용단
주관: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공연문의: 031)877-8991

의정부시무용단 제 11회 정기공연 “相生 2007”

의정부시무용단이 개최하는 제11회 정기공연 ‘相生 2007’ 무대에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무대는 제1부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명난 춤사위와 제2부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창작무용극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相生 2007’ 무대를 통해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마다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07년 6월 22일(금) 오후 7시30분
◆주최 : 의정부시무용단
◆문의 : 031)877-8891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후원 :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프로그램

1부-당기당창 수월래 수월래

1. 앓은반 설장고
2. 훈령무
3. 무고와 아박
4. 경고와 검무
5. 손복춤

2부-흰 꽃잎이 마음에 묻힐 때...

의정부에 전해오는 ‘의순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에 태어나 총절로 죽어간 한 여인과 그녀를 사랑한 한 남자의 아름답고 슬픈 운명적 삶을 표현한 창작무용극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랑보다 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슬픈 운명과 그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오열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애타고 안타까운 사랑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극 흐름 속에 내재된 강직하고도 곧은 민족혼을 일깨우며 비극적 슬픔을 무대 위에서 가슴깊이 보여주어 준다.